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5. 1

4th Week

목 차

1. 본문

- ▷ 중국, 2014년도 전자정보통신 표준화 10대 뉴스 발표
- ▷ ITU의 새 관리팀 출범

2. 단신/토막뉴스.....7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 중국, 2014년도 전자정보통신 표준화 10대 뉴스 발표

보도날짜 2015.01.10

출 처 신화뉴스

사 이 트 http://news.xinhuanet.com/info/2015-01/10/c_133909430.htm

- CESA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Association¹), 중국 전자공업 표준화 기술협회, CESI (China Electronics Standardization Institute²), 중국 전자 기술 표준화 연구원),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Zhongguancun Science Park³) 관리위원회 등 주요 조직의 제안과 중국 전자신문 등 매체의 홍보, 전문가의 선택 및 평가, 그리고 MITT(공업정보화부)의 관련부처의 심사를 거쳐, 제7차 전자정보산업 표준 활동으로 "2014년도 전자정보산업 표준화 10대 뉴스"를 선발하였고, 2015년 1월 8일에 정식으로 발표함

1. 정보기술과 공업 분야로 구분되었던 관리 시스템 통합⁴(两化融合, 양화통합)

- 관리 시스템의 통합 요구와 인프라, 및 운영지침이 발표된 후, 국가표준화위원회는 <요구사항>, <기본 어휘>, <운영지침> 및 <감사 지침> 등 4개 항목의 양화통합관리 시스템 국가표준의 신청입안을 제출했고, 그 중, <요구사항>, <기본 어휘> 그리고 <운영지침>은 정식으로 입안하였음
- 이로 인해 양화통합관리시스템 응용이 일반화되고 보급됨. 502개의 관표⁵ 기업을 확인하고 지원해주며, 80개 관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정보화 환경 아래 기업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면서 두 개의 관리시스템의 작업 실적을 평가함

2. 중국과 대만의 (해협 양안⁶) 정보산업 협력 각서 체결

- 해협 양안 감응신호장치 영역 산업의 발전 현황에 따른 요구로써, 양안 감응신호장치 영역의 표준 연구를 실시하고 산업합작을 위하여 제 11차 해협 양안 정보산업 및 기술 표준 포럼 상의 새로운 <해협 양안 감응신호장치 영역 표준연구 및 산업합작 각서>를 체결함
- 양안은 포럼에서 동시에 반도체조명, 평판 디스플레이, 태양광발전 등 3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한 공동 표준을 발표했고, 30개의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해협 양안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관한 공동표준>과 <협회양안 클라우드 관련 공동 표준 제정 및 산업 협력 합작 각서>, <해협 양안 4G/TD-LTE 두 번째 단계의 공동 표준 제정 합작 각서>

1) 중국 전자공업 표준화 기술협회 <http://www.cesa.cn/default.aspx>

2)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 <http://www.cesi.cn/>

3) 중관촌 과학 기술 단지 <http://www.zgc.gov.cn/>

4) 양화통합관리시스템: 양화통합은 정보기술 및 공업화의 고레벨 결합이다. 정보화가 공업화를 선도하고, 공업화가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신 산업화로 진입하게 된다. 양화통합의 핵심은 정보화를 지탱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다. (<http://baike.baidu.com/view/3162693.htm> 바이두 백과사전 참고)

5) 관표(贯标): 통상적으로 관표란,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표준과 ISO14000 환경관리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관표 기업은 관표를 실행하는 기업. (<http://baike.baidu.com/view/867989.htm>, 바이두 백과사전)

6) 해협 양안: 중국대륙과 대만

등 3개의 각서에 서명했음

3. 전자산업 기술표준 구축 시스템

- 공업정보화부 기술표준 시스템에서, 전자관련 업종은 <전자정보분야의“10,2,5”기술표준에서 시스템 구축 방안>과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업계의 기술 표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 국가의 산업발전요구에 따라 산업발전현황 및 동향을 분석, 표준현황과 국제표준화 작업 정리, 국내외 관련 표준화 연구와 비교분석, 기술표준 시스템 프레임워크 등을 개선함.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 안에 표준화 중요영역과 작업을 정의하고, 표준과 산업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표준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제공할 예정

4. 휴대용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 강화 국가표준 발표

- 리튬 이온 전지의 안전성이 여러 분야에서 중시되는 가운데, (특히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등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이온전지의 안전)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 각 방면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는 리튬 이온 전지 안전 영역의 강제성 국가표준인 <휴대용 전자제품용 리튬 이온 전지와 배터리안전 요구사항>(GB31241-2014)의 개발을 주도하였고, 2014년 12월 5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음. 표준은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국내외 배터리 표준 중 성숙한 안전 테스트 항목을 종합 채용하여 회로와 지표 내구성 등 관련 요구를 보충했고, 특히 휴대용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과 배터리 팩에 해당하는 안전 요건과 시험방법에 초점을 맞춰, 품질관리, 제품 설계 및 와이어 연소 실험 등을 부록으로 넣었음

5. AVS⁷⁾+ 표준생산 결합의 단계적 성과 취득을 촉진시키는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라디오 및 TV방송신문출판부의 연합

- AVS 표준 응용 프로그램의 혁신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3월 공업정보화부 및 국가라디오 및 TV방송신문출판부⁽⁸⁾State Administration of Press, Publication, Radio, Film and Televi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라디오 및 TV 비디오 코덱(AVS+) 기술응용 구현 가이드>를 발표함
- <가이드>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업정보화부와 국가 영화TV방영국의 지도하에 AVS기술 응용 공동 작업 그룹 및 전국 영화TV방영 표준화 기술 위원회는 <AVS+기술 응용실시지침서> 발표회를 개최했고, 동시에 CCTV⁹⁾와 호남방송국은 AVS+ 표준을 사용하여 고화질TV프로그램을 상영했고, AVS+기술 산업화와 응용 프로그램의 단계적 돌파구를 달성했음

7) AVS: 중국의 독립적 지적재산권의 2세대 소스코딩 표준. <정보기술 선진 오디오 및 비디오 코딩>시스템 표준의 약칭으로, 시스템, 비디오, 오디오, 디지털저작권 관리 등 네 개의 주요기술 표준과 부호화 테스트 지원 표준

8) 국가 라디오 및 TV방송 신문 출판부 <http://www.gapp.gov.cn/>

9) CCTV (中央电视台): 중국의 국영방송국

6. 전자산업 주요 분야의 종합 표준화 작업

- 현재의 기술 및 산업의 통합 발전과 급속한 발전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반도체조명,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킹, 리튬 이온전지, 태양광 산업발전의 핵심영역의 표준화 종합 작업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연계된 각계 산업들의 참여와 상호협력, 그리고 중요영역 종합 표준화 기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표준화 시스템의 최고층 설계와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표준연구제작의 중요방향과 중요 프로젝트를 명확히 했음. 중요 표준의 제정과 시행의 세트체제 추진을 통해 산업 연계 체인을 만들고, 상호연결 및 조화로운 결합,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종합 표준화기술 표준시스템을 건설함으로써, 표준화가 전체 연결 산업을 발전할 수 있게 함

7. 정보기술(IT) 서비스 표준화 돌파구 마련

- 중요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그룹 조직. 중앙 전기 표준화협회 IT 서비스 분회, 국가 정보 표준화위원회 IT 서비스 기술위원회, 국제 표준화조직 ISO/IEC SC40¹⁰⁾ (IT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너스 기술위원회) 서비스 운영 연구 그룹이 설립함
- 표준화 개발 및 실현. <IT 서비스 데이터 센터 서비스 역량 성숙도 모델>등 6개 항목의 국가 표준이 국가 표준 위원회에 입안되었고, <IT 서비스의 서비스 관리 기술 요구 사항>등 3개 항목의 산업표준의 제정 작업이 완성되었으며, <IT서비스 자문설계 제1부: 일반 요구사항>등의 13항목 표준화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됨
- 표준 응용의 일반화를 실현. 북경과 상해, 그리고 광둥 등 18개 도시에서 표준 발표회를 개최했고, 28개 성시와 173개의 기업이 표준 적합성 평가를 완료함
- 갑방¹¹⁾사용자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 표준응용. 2014년 12월, 북경방송국과 운남 전력망의 ITSS 적합성 평가의 공식 출시에 초점을 맞춰, ITSS 표준 응용 갑방 사용자의 정보 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갑방사용자가 완전한 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8. 표준화를 향한 전자 산업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구축을 통해 기업의 자질과 종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 및 품질 향상, 산업 혁신 관리 방법,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했음. 2014년, IT 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공업정보화부의 지도하에 발걸음을 내디딤. <IT 산업의 사회적 책임 지침>은 산업 표준화 개발연구 작업의 정식 시작을 알렸고,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산업의 사회적 책임 작업 이해를 끊임없이 추진했음

10) SC40: Subcommittee 40 on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of National Technical Committee 28 on Information Technology of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SC40

11) 갑방: 둘이나 둘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계약이나 협의시 어느 한편을 갑방, 다른 한편을 을방이라고 함. 일반적으로는 위탁하는 측을 갑방이라고 함 (네이버 사전)

9. 중관촌¹²⁾기업의 주도로 제정된 북두칠성위성항법(베이더우) 시스템 등의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 <선하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수신기 설비 성능 표준> 제안이 국제 해사 기구 (IMO)의 공식 기준을 획득했고, 이는 베이더우 시스템이 국제표준의 관련 영역에서 최초로 국제조직의 기준을 통과하면서 중국의 베이더우의 글로벌화 응용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의가 있음
- 신웨이(信威) 통신의 McWill 기술이 정식으로 ITU 국제 통신연합의 공공안전과 재난 구호 영역 (PPDR)국제 표준이 되었고, McWill은 국제 우주 무선통신표준의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음
- 섬련(閃聯) 통신설비 자원 공유 서비스 제 7부분이 ISO/IEC 국제표준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고, IEEE 오디오 및 비디오 주파수 1857 워킹그룹 비서실이 중관촌 시청각산업기술과 혁신 제휴를 했으며, IEC 스마트 도시 시스템 평가 그룹인 "스마트 홈 유즈 케이스"워킹그룹이 삼련 사무국에 정착했음

10. 국제표준화 작업에서의 향상된 "발언권"

- 중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무선주파수 단자, 동축 통신케이블 등의 영역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음
- <IT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및 어휘>, <IT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아키텍처>, <동축 통신케이블 제 9부: 소프트웨어 케이블 사양> 등 8개 항목의 클라우드 컴퓨팅, 동축 통신 케이블 분야의 국제표준을 정식 발표했음. 중국 주도의 기술인 <사물인터넷 참조 아키텍처>와 <감응신호장치 네트워크 테스트 프레임워크>등 2개 항목의 사물인터넷 영역 국제표준이 ISO/IEC 기준을 획득했음

12)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2. ITU의 새 사무총장 취임

보도날짜 2015.01.14

출 처 ITU

사 이 트 http://www.itu.int/net/pressoffice/press_releases/2015/CM01.aspx#.VLyFWCofp9A

• ITU 신임 사무총장 Houlin Zhao가 2015년 1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할 예정. 중화인민공화국의 Houlin Zhao는 지난 10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음. 그는 그전에 4년 임기인 ITU 사무차장으로 두 번 역임한바 있고 (2006~2014), ITU 표준화 국장으로 두 번 역임한바(1998~2006) 있음. 영국의 Malcolm Johnson은 ITU 사무차장으로 선출되었음. 그는 4년 임기인 ITU 표준화 국장으로 두 번 역임한바 있음. Francois Rancy와 Brahima Sanou는 각각 전파통신사무국과 전기통신개발 사무국의 이사로 재 선출되었음. 한국의 이재섭은 ITU 표준화 국장으로 선출됨

• 2015년은 ITU 설립 150주년이며, ITU는 세계 전기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 (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Day, 2015.05.15.)을 통하여 150주년을 기념할 예정. 올해 ITU는 ICTs를 혁신의 선두주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몇 가지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임

- 1월: ITU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광대역위원회 특별 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임
- 2월: 2월 13일 세계 라디오의 날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과 혁신(Youth and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 ITU는 제네바에서 특별 이벤트를 주최할 예정이고, UNESCO, BBC, RTS, EBU, UN라디오 등 24시간동안 방송할 예정임
- 3월: 표준과 혁신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춤. 제네바 모토쇼에서 선보일 미래의 네트워크 자동차로 강조 될 지능형 교통 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에 초점을 맞춤 예정
- 4월: 소녀와 여성, 그리고 혁신에 초점을 맞춤. 4월 23일 ICT 여성의 날을 맞아 ITU는 '혁신을 위한 코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
- 5월: ITU 통치위원회는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회합하여 세계전기통신 및 정보사회의 날에 참석할 예정. 올해 WSIS 포럼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리고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의 10주년임
- 6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결과로 넓은 범위의 혁신 기회가 열리고 스페셜 웨비너(Webinars, 웹세미나)가 디지털 배당(?Devidend)과 통신 기회의 이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
- 7월: ITU 장애를 가진 10억 명의 접근성을 다룰 예정임. 블로그, 웹세미나, 포드캐스트 등은 접근 기술을 통해 ICT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8월: 혁신과 디지털 격차 해소는 8월에 주목될 예정. 8월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에는 ITU의 다음 15억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선보일 예정

- 9월: 해양과 항공의 네비게이션과 안전이 9월에 강조될 것이고, 리얼타임 비행 추적과 더불어 레이더와 위성 네비게이션에 관한 ITU의 작업이 포함될 예정. 9월 24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해양 산업에 ITU 전파통신 부분의 기여를 선보일 예정
- 10월: 빅데이터와 혁신이 10월의 주제인데, 디지털 금융 서비스, 모바일 머니, 항공 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다룰 예정. 10월 13일 국제 재해 위험 감소의 날을 맞아 비상 통신에 초점을 맞출 예정
- 11월: ITU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인 2015년 ITU 세계전파통신회의가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임. 컨퍼런스에서는 전파규칙을 검토하고 개정할 것이고,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 궤도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 조약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고성능 전파통신을 즐기면서 여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것임 11월 21일 세계 텔레비전의 날을 맞이하여 ITU는 어떻게 ICT가 방송에서의 혁신을 주도했는지를 탐색할 예정임
- 12월: 기념일의 마지막으로 광대역과 WRC-15의 중요한 결과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것이고, 어떻게 그들이 혁신을 주도했고 미래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강조할 것임. 전 세계 ICT 발전수준과 한 해 동안의 성과를 12월에 열릴 예정인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Symposium (WTIS)에서 확인할 것임

단신/토막뉴스

AllSeen Alliance, 오픈소스 AllJoyn IoT 게이트웨이 에이전트 신설

<http://appdeveloper magazine.com/2284/2015/1/12/AllSeen-Alliance-Launches-Open-Source-AllJoyn-IoT-Gateway-Agent/> (2015.01.12.)

- AllSeen Alliance는 AllJoyn 프레임워크(원격 액세스, 장치관리 및 정교한 보안과 개인정보 컨트롤)의 확장인 AllJoyn Gateway Agent를 발표함. AllSeen Alliance는 AllJoyn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지원 협력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연결과 서비스 프레임워크임
- AllJoyn Gateway Agent의 아래 네 가지의 특징이 있음
 - 원격 액세스 및 관리
 - 보안 및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 상호운용성
 - 개방형 표준 지원

ETSI,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의 첫 단계 작업 완료

<http://www.etsi.org/news-events/news/864-2015-01-press-etsi-network-functions-virtualisation-completes-first-phase-of-work> (2015.01.13.)

- ETSI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Network Functions Virtualisation) 산업규격그룹 (Industry Specification Group, ISG)이 11개의 그룹 사양을 발표하면서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이 사양들은 2013년 10월 발간된 ISG 문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프라 개요, 업그레이드 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하이퍼바이저(hypervisor) 및 인프라 네트워크 도메인 등을 포함. 또한, 관리 및 결합, 보안 및 신뢰, 탄력성 및 서비스 품질 매트릭스를 커버함

ITU, 미래 네트워크 자동차에 관한 ITU심포지엄 개최

<http://newslog.itu.int/archives/778> (2015.01.14.)

- 2015년 3월 5일, ITU는 미래 네트워크 자동차에 관한 ITU 심포지엄을 제네바 국제 모터쇼 내에서 개최될 예정. 이 심포지엄에서는 자동차 및 ICT 산업, 정부, 그리고 정부규제기관, 모터스포츠 및 국제 자동차 협회 등의 대표들이 모여 현 상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ICT와 자동차와의 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
- 미래 네트워크 자동차에서의 ITU 심포지엄은 비즈니스와 기술 및 규제의 관점에서 ICT와 자동차 교집을 확인할 예정임. 기술세션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정보 보안, 위치 참조 및 지도 등과 같은 기본 요구사항을 강조하면서 산업 혁신과 ITS 분야에서의 표준화 작업을 토론할 예정임

TTC, 전자정보 건강관리SWG와 스마트카SWG 위원모집

<http://www.ttc.or.jp/j/info/topics/topics20150114/> (2015.01.14.)

- 일본 TTC 멀티미디어 응용 전문위원회는 전자정보 건강관리 SWG(e-health-swg)와 스마트카 SWG(smart-car-swg)를 신설
 - 기존 스마트커뮤니케이션 자문그룹 (Smart Com AG)의 e-Health WP (e-Health Working Party)와 스마트카 WP (Smart Car Working Party)의 표준화 작업을 전자정보 건강관리 SWG 및 스마트카 SWG에서 추진